

KOCHAM

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4월 11일(금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美 생산자물가 지난달 0.5% 상승, 9개월간 최대폭
- 2) 美-日 TPP 체결, 이번에도 쉽지 않을 듯
- 3) 美 테이퍼링에 버냉키-라잔 의견 분분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독일 물가상승률 3개월 연속 하락
- 2) 일본은행 3월 의사록, 경제 회복세 반영
- 3) 중국 3월 PPI 25개월째 마이너스 기록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소니, 신형 바이오 노트북 화재 위험, 사용 중단 경고
- 2) BMW 엔진 볼트 결함 차량 美서 15만여대 리콜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美 생산자물가 지난달 0.5% 상승, 9개월간 최대폭

- 지난 11일(현지시간) 미노동부는 지난 3월중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비 0.5% 상승, 최근 9개월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발표
 - 이는 전문가 예상치 -0.1~0.3%, 블룸버그 추정치 0.1%를 상회하는 결과
- 전문가들은 지난달 1.1% 상승한 식료품 가격이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
 - 에너지 비용은 지난달에 1.2% 하락, 이번의 생산자물가지수 상승폭이 여전히 미연준(FRB)의 목표치 2%를 하회하기 때문에 물가 변동이 기준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
 -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변동성을 줄인 핵심 생산자물가지수의 지난 3월 상승폭은 0.6%를 기록

2) 美-日 TPP 체결, 이번에도 쉽지 않을 듯

- 지난 11일(현지시간) WSJ은 일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 체결을 맺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에도 미국-일본 TPP 체결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
 - 당초 계획대로라면 미국은 지난해 일본과 TPP를 맺을 의도였지만 일본과 농수산물 시장 개방 수준과 관련한 입장차를 조율하는 데 실패, TPP를 체결하지 못한 바 있음

- 이에 일본은 대신에 최근 호주와의 경제동반자협정(EPA)에서 쇠고기 관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한 점을 언급, 미국에도 농수산물 5가지에 대한 관세 단계적 인하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음
-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 진전이 어렵다고 예상

3) 美 테이퍼링에 버냉키-라잔 의견 분분

- 지난 10일(현지시간) CNBC는 버냉키 전연준(FRB) 의장이 라잔 인도중앙은행 총재와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를 두고 글로벌 정책 토론회에서 논쟁을 벌였다고 보도
- 라잔 총재는 미 테이퍼링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보임
 - 라잔 총재는 미국이 돈 풀기와 초저금리 정책을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여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장점이 희석 되었다고 지적
 - 글로벌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‘게임의 규칙’ 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
 - 이는 그동안 연준이 테이퍼링을 단행하면서 신흥국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됨
- 이에 대해 버냉키 전 의장은 라잔 총재의 주장을 반박
 - 버냉키 전 의장은 환율 개입 같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정해진 수요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지만 통화 공급의 측면은 무시되곤 한다면서 양적완화 같은 비전통적인 정책은 글로벌 경제의 총 수요 자체를 늘려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진다고 설명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독일 물가 상승률 3개월 연속 하락

- 지난 11일(현지시간)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 3월중 독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.0%를 기록, 지난 3개월 연속 하락 하였다고 발표
 - 이는 전월대비 0.2%p 하락한 결과로 지난 201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
 - 또한 유럽중앙은행(ECB)의 관리 상한선인 2.0%의 절반 수준에 불과
- 전문가들은 물가상승률 하락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 탓에 난방 수요가 줄어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
- 한편, 독일의 3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하락은 ECB의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를 가중할 것으로 전망

2) 일본은행 3월 의사록, 경제 회복세 반영

- 지난 11일(현지시간) 일본은행은 지난 3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적정선에서 상승하고 있다고 밝힘
 - 위원회는 일본 경제 전망에 대해 향후 적절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, 이 전망은 신흥국의 개발과 유럽의 부채 문제와 미국 경제 성장 속도, 신흥국의 개발 등이 반영된 결과
- 또한 일본은행은 이 회의에서 본원통화를 연간 60조~70조엔 늘린다는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, 기준금리도 현행 0.0~0.1%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

- 한편 이들은 현행 완화기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수출량이 회복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

3) 중국 3월 PPI 25개월째 마이너스 기록

- 지난 11일(현지시간)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3월 산업생산물가지수(PPI)도 2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
 - 또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던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3월에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2%대에 머물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벗어나지 못함
- 3월 PPI는 지난해 동월대비 2.3% 하락하면서 2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, 이는 지난 2월 PPI(-2.0%)와 시장 전망치(-2.2%)를 하회, 1997년 이후 최장기록을 경신하는 수치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소니, 신형 바이오 노트북 화재 위험, 사용 중단 경고

- 지난 11일(현지시간) 일본 전자업체 소니는 고객들에게 신형 노트북 Vaio Fit 11A 배터리에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중지하라고 경고
 - 이 제품은 올해 2월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2만5905대 판매된 바 있음
- 또한 향후 수주내 수리 옵션 등을 비롯한 추후 조치를 발표하고 리콜까지 실시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객들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힘

2) BMW 엔진 볼트 결함 차량 美서 15만여대 리콜

- 지난 10일(현지시간) BMW는 미국내 판매되는 BMW차량 엔진 제어에 쓰이는 볼트에 결함이 있는 차량 15만6천대를 리콜 한다고 밝힘
 - 리콜 대상 차종은 2010~2012년에 생산된 1시리즈, 3시리즈, 5시리즈, 5시리즈 그란 투리스모, X3 크로스오버, X5크로스오버, X6크로스오버 Z4 스포츠카, 그리고 2012년에 만들어진 6시리즈
- 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볼트가 풀리거나 파손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엔진이 안전 모드 들어가 제한적으로 작동, 나아가 차량이 멎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
- 한편 BMW는 이달 초 중국에서 엔진 볼트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 23만2천여 대를 리콜 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.끝.